



안내 : (02)2000-2114 제18722호 11판



오세훈 “평범하고 성실한 시민들의 승리”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서울시장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이 4일 당선 직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 인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평범하고 성실한 시민들의 승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해뜰때까지 몰랐다...뭣, 첫 5選시장

뉴스 & 분석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與 12 vs 野 4

“더불어민주당 12명대(對) 국민의힘 4명.” 치열했던 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리고, 4년간 지방 행정을 이끌 16명의 광역단체장이 4일 확정됐다. 성적표만 보면 민주당 압승으로 귀결된 모양새지만 심야에 벌어진 ‘대역전극’으로 여야 표정이 반전됐다.

전날 서울에서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등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개표가 더디게 진행됐다. 개표 13시간 만인 4일 오전 7시께 시종 열세였던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득표율이 처음으로 정원인 민주당 후보를 앞서는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다.

결국 오 후보는 정 후보를 1%포인트가량 차이로 따돌리며 사상 처음 5

한강벨트 유권자 표심 확 쏠려 투표 다음날 아침 7시 ‘대역전’ 민주당, 4년 전 참패 설욕했지만 막판 서울 내주며 빛바랜 승리

선 서울시장이 됐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5.4%포인트 열세로 예상됐지만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 반전이 있었다. 작년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밀렸던 강남 3구·용산구 외에 송파구, 동작구, 영등포구, 강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 유권자 표심이 오 후보에게 쏠렸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중도층과 이른바 ‘사이 보수’의 투표 참여로 이

어졌다고 분석했다. 서울 집값 흐름은 물론 보유세 인상 가능성 등이 표심에 반영됐다는 얘기가.

오 후보도 당선 소감에서 “서울의 최대 현안은 부동산 문제”라며 전세 물량 급감, 월세 폭등을 언급했다. 민주당은 보수 텃밭인 부산과 울산을 포함해 12곳에서 승리하며 ‘지방 권력’을 탈환했지만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 패배하면서 ‘미완의 승리’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며 “다른 당과 연대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서울, 대구, 경북, 경남 등 4곳을 수성하는 데 그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아쉬운 선거 결과에 송구스럽다”면서도 “제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당원들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새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전경운·정석환 기자

광역단체장 최종 결과	
2022년	민주당 5, 국민의힘 12
2026년	12, 4

6·3 재보궐 국회의원 소속정당		
민주당	9	국민의힘 4, 무소속 1

6·3 지방선거 지면안내	
갈라진 영남 민심	A2면
서울시장 13시간 대역전극	A3면
선관위 관리부실 일파만파	A4면
여야 당권구도 ‘오리무중’	A5면
기초단체장 선거결과 분석	A6면
이재명 2기 내각 개편	A8면
득표 현황·당선인 프로필	A10-11면
서울 주택정책 변화 예고	23면
서울구청장 與 17 vs 野 8	25면

李 “투표용지 부족사태 명확하게 책임 물어야”

靑참모회의서 선관위 비판 국힘, 與에 국정조사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준비 부실로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빚어진 데 대해 “관계 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서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또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 야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A4·8면**

이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참정권이 한 치라도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할 만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 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중앙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헌법기관이지만 국민 기본권인 참정권을 제한하는 엄중한 상황을 초래한 만큼, 정부가 행정부 권한을 최대한 사용해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자체 조사와 별개로 행정안전부·법무부·경찰·감사원 등 행정부 소속 기관들이 관련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히 야 될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성승훈 기자

LG, 엔비디아 블랙웰 GPU 1만장 산다

젠슨 황 CEO 오늘 방한

(AI) 모델인 ‘액사원’과 LG전자에서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을 학습시키는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5일 오후 방한해 최대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과 만날 예정이다. 이덕주·박소라 기자

LG그룹이 미국 엔비디아에서 블랙웰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도입한다. LG그룹은 이를 활용해 그룹 ‘인공지능 전환(AI)’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관련기사 A15·29면**

4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GPU는 LG AI연구원의 초거대 인공지능

정부, 환율 구두개입에도...원화값 1540원 무너져

구윤철 “과도한 쏠림 즉시조치” 외국인 코스피서 7조원 순매도 국제 3년물 금리는 3.8% 넘어

정부가 외환·채권 시장을 향해 동시에 경고장을 날렸다.

일부 투기성 움직임이 가계와 기업 부담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

두개입에 나선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내 과도한 쏠림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채권시장에 대해서도 “과도한 변동성 발생 시 관계 기관이 공조해 적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A14면**

경제부총리가 환율과 채권 양쪽을 겨냥해 직접 압박성 발언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전 거래일보다 13.6원 내린 1530원에 출발해 1529.7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달러당 원화값은 야간거래에서 한때 1540원대까지 밀렸다. 2009

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간 것이다. 이날 코스피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7조원 가까이 순매도하며 원화값 하락을 부추겼다.

국제 3년물 금리는 이날 전 거래일(3.773%) 대비 2.3% 상승한 3.858%로 장을 마쳤다. 나현준·김혜란 기자

알립니다

‘위대한 투자자’가 들려주는 재테크 비법

매경플러스 릴레이 특강 24일 부산·내달4일 서울

매일경제의 프리미엄 재테크 플랫폼 ‘매경플러스’가 지방선거 이후 급변하는 투자 환경을 점검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특별 강연을 개최합니다. 먼저 6월 24일과 7월 4일에 각각 부산과 서울에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강연은 8월 말까지 대구,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강연회

는 무료로 진행되며 현장 참가자 2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참가 신청은 부산 강연 신청을 위한 아래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연에는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부동산),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상무(주식), 장현철 삼성증권 채널솔루션전략팀장(자산관리) 등이 투자 비법을 들려줍니다. 7월 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12층 대강당에서 매경플러스 인기 연재인 ‘한국의 위대한 투자자’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특별 강연이 열립니다. **A20면에 계속** 부산 강연

XMD STEM III CLINICAL RECOVERY SERUM

최초의 피부과 관리 비교검증된 물광플러밍

NEW 아이오페 XMD 스템3 클리니컬 리커버리 세럼

1) 자사 최초 2) 건강한 피부의 피부관리를 의미

구매 문의 | 080-023-5454 / 카카오톡 ‘아이오페’ 채널 | 판매처 | IOPE 공식 네이버스토어 / 전국 아리아뎀 및 마트 아모레퍼시픽 매장